

## 素問六氣玄珠密語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 A Study on *Suwenliuqixuanzhumiyu*

Yun Chang-yeol\*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s** : *Suwenliuqixuanzhumiyu* is a book that strongly influenced the following generations'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It is understood that Wangbing authored the book during the Tang dynasty, but another theory suggests that a nameless author devised the book falsely in Wangbing's name. A comprehensive research is greatly significant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Methods** : The study will focus on the analysis on the truth about *Suwenliuqixuanzhumiyu*, its impact on the following generations'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the contents and comparison of *Suwen's xuanzhumiyu*, and the 17 books and 27 chapters of *xuanzhumiyu*.

**Results & Conclusions** : First, *xuanzhu* was authored by Wangbing sometime around 762 AD, and *Suwenliuqixuanzhumiyu* was written in 690 during the rule of Empress Wu Zetian, meaning that Wangbing is not the author of *Suwenliuqixuanzhumiyu*. Second, Wangbing's style of writing is regular yet elegant, and keeps itself within the range of medical style of writing, but *Suwenliuqixuanzhumiyu* is written in a very rough style, and finds itself within the range of Tao literatures and books on trickery. Third, Wangbing's *xuanzhu* is a commentary on Suwen, whereas *Suwenliuqixuanzhumiyu* is consisting of the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and trickeries predictive picture. As such, the two books have entirely different characters. Theories that received relatively significant impacts to the following generations' the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include Gandeokbu, Jeongwhadaewha, and the Calculation method of normal Qi. *Suwen's* chapter on the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and *Suwenliuqixuanzhumiyu* have many inconsistent and differing theories, leading the scholars to believe that they are dealing with different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which derived from separate schools of beliefs.

**Key Words** : Wangbing, *Xuanzhu*, *Suwenliuqixuanzhumiyu*, Five Circuits and six Qi, Gandeokbu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82-42-280-2601

Email : yooncy@dju.ac.kr

Received(27 October 2016), Revised(14 November 2016),

## 1. 緒 論

『素問六氣玄珠密語』는 『玄珠密語』 또는 『元珠密語』라고도 불리우며 唐代 王氷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빙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의 서문에서 “辭理秘密하야 難粗論述者는 別撰玄珠하야 以陳其道라(말의 이치가 비밀스러워 거칠게 논술하기가 어려운 것은 별도로 『玄珠』라는 책을 지어 그 도리를 진술했다)”<sup>1)</sup>고 하여 그가 『素問』에 주석을 다는 동시에 『玄珠』라는 책을 별도로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舊唐書』, 『新唐書』에 왕빙의 이 책이 기술되어 있지 않고 『宋史·藝文志』에 “『王氷 素問六脉玄珠密語』 一卷(脉은 氣의 오류로 보인다)”<sup>2)</sup>이라고만 기술되어 있다. 이 『宋史』의 기술에 의해 『玄珠密語』가 후세에 『素問六氣玄珠密語』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되었으리라 추측되며 『素問六氣玄珠密語』라는 명칭이 왕빙, 임억이 말한 『玄珠』와 같지 않고 1卷이라는 말이 임억이 말한 10卷과 같지 않아 임억 등이 언급한 『玄珠』와 같은 책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北宋의 林億, 高保衡 등이 왕빙이 注를 단 『素問』을 校正할 때에 “王氏『玄珠』는 世無傳者라. 今有『玄珠』十卷과 『昭明隱旨』三卷은 蓋後人附託之文也라.(왕빙이 지은 『현주』는 세상에 전해오지 않는다. 지금 전해오는 『현주』 10권과 『소명은지』 3권은 아마 후인들이 왕빙의 이름을 가탁한 책인 듯하다.)”<sup>3)</sup>라고 하였다.

이 말이 있는 이후로 이 책에 대해 왕빙이 지은 『玄珠』는 이미 失傳되었고 세상에 전해오는 책은 후인이 왕빙의 이름을 가탁한 僞書라고 인식되어 왔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오운육기학설을 부연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氣象, 物候, 占卜, 吉凶 등의 내용을 함께 설명하여 후세 운기학설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宋나라 때 劉溫舒가 지은 『

素問入式運氣論奧』를 위시하여 후세의 운기론자들은 『玄珠』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玄珠密語』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중국에서는 張登本<sup>4)</sup>, 荊麗娟<sup>5)</sup>, 蘇穎<sup>6)</sup> 등의 논문이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論者는 이 책의 眞僞에 대한 考證과 후세에 미친 영향, 『素問』운기7편과의 비교 및 전체내용을 개괄해 보는 것이 운기학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논문에 착수하게 되었다.

## 2. 眞僞에 대한 分析

현존하는 『素問六氣玄珠密語』에는 서문이 실려 있는데 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책의 저자가 王氷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판별이 된다.

첫째 서문에 “后因則天理位 하야 而乃退志休儒라 (뒤에 측천무후가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뜻을 거두고 유학을 공부하는 것을 그만 두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왕빙은 『素問』 序의 말미에 “時 大唐寶應 元年 歲次 王寅 序”라 하였다. 이때는 代宗의 즉위년으로 762년에 해당한다. 측천무후가 나라이름을 周로 바꾸고 통치하던 시기는 서기 690~705년이다. 왕빙이 소문에 注를 단 해가 그의 나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문의 “辭理秘密 하야 難粗論述者는 別撰『玄珠』하야 以陳其道라” 하였으니 왕빙이 『玄珠』를 쓴 시기는 소문에 注를 단 762년 전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서문을 살펴보면 저자가 뜻을 거두고 물러난 뒤에 전심으로 道를 묻고 스승을 찾다가 玄珠선생을 만나 그를 師事하여 이 내용을 전수 받았다고 하였으니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측천무후등극 이후의 일이다.

둘째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考氷所注『素問』 竝대 義濫宏深하고 文詞가 典雅하니 不似此書之迂怪

Accepted(15 November 2016)

- 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6.
- 2) 脫脫 撰, 宋史(15). 北京, 中華書局. 1990. p.5305.
- 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6.

- 4) 張登本, 王氷與玄珠密語源流考. 中醫藥學刊. 2005. 23(4). pp.586-588.
- 5) 荊麗娟, 素問六氣玄珠密語版本流傳情況及與王氷玄珠眞僞辨疑. 中華中醫藥學刊. 2010. 28(10). pp.2051-2053.
- 6) 蘇穎, 聶金娜. 玄珠密語疫理鉤玄.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2. 18(10). pp.1059-1060.

라 且序末에 稱傳之非人이면 殃墮九祖라하니 乃粗野道流之言이라(왕빙이 주를 단 소문을 살펴보면 뜻이 심오하고도 넓으며 문장이 법도에 맞고 우아하니 이 책의 천박하고 괴이한 것과는 같지 않다. 또 서문의 말미에 ‘전하지 못할 사람에게 전해주면 재앙이 9대 할아버지에 까지 떨어진다’라고 하였으니 거친 시골의 도가류의 말이라)”<sup>7)</sup>고 하였다. 『素問六氣玄珠密語』 서문의 말미에 보면 “故祖師言六氣之道는 本天之機니 其來可見이오 其往可追니 可以注之玉版하고 藏之金櫃니 傳之非人이면 殃墮九祖라(따라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육기의 이치는 하늘이 변화하는 기틀에 근본하니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가는 것도 파악할 수 있으니 옥판에 새기고 금궤에 저장해야 할 것이니 전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전하면 재앙이 9대 할아버지에게 까지 미친다’고 하였다)”<sup>8)</sup>라는 말이 있다.

서문의 내용을 읽어 보면 이 책은 醫書로서 집필된 것이 아니고 道家에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能究其玄珠之義하야 見之天生하면 可以延生이오 見之天殺하면 可以逃殺이라(능히 현주의 뜻을 연구하여 하늘이 살리는 것을 보면 생명을 늘일 수가 있고 하늘이 죽이는 것을 보면 죽음에서 도피할 수가 있다).”<sup>9)</sup>라고 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본서는 仙家の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는데 다음의 문장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余于百年間에 不逢志求之士하고 亦不敢隱沒聖人之言하야 遂書五本하야 藏于五岳深洞中할새 先饗山神하고 后乃藏之하니 恐後人志求者 可以遇之라. 如得遇者는 可以珍重之하며 寶愛之하야 勿妄傳之니 不得奇人이면 不可輕授爾니 此玄珠子授余之深誠也라.(내가 백 년 동안에 뜻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또 감히 성인의 말씀을 숨겨서 인몰

시킬 수가 없어 드디어 다섯 질을 써서 오악의 깊은 동굴 속에 저장할 때 먼저 산신에게 제사지낸 뒤에 감추었으니 아마 후인의 뜻으로 구하는 자가 얻어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책을 얻는 자는 진기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보배롭게 여기고 애지중지하여 망령되어 전하지 말 것이니 전해줄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가볍게 전수하지 말 것이니 이것이 현주자가 나에게 내려준 깊은 경계이다.)<sup>10)</sup>”

위의 내용을 보면 이 책은 醫書가 아니고 道書이며 대중화할 책이 아니고 숨겨서 私傳할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四庫全書』에서는 이 책을 醫家類에 배속하지 않고 子部의 術數類에 배속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보다라도 현존하는 『素問六氣玄珠密語』는 왕빙이 지은 『玄珠』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宋의 仁宗 때 林億 高保衡 등도 당시에 전해지고 있는 『玄珠』에 대해 왕빙의 저서가 아니고 후인들이 왕빙의 이름을 가탁하여 지은 책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新校正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雖非王氏之書나 亦於素問第十九卷至二十四卷에 頗有發明이라. 其『隱旨』三卷은 與今世所謂『天元玉冊』者로 正相表裏而與王冰之義로는 多不同이라.(비록 지금 전하는 『玄珠』가 왕빙이 지은 책은 아니나 또한 소문의 제19~24권에 자못 발명한 바가 많다. 『소명은지』 3권은 지금 세상의 이른바 『天元玉冊』과 바로 서로 표리가 되지만 왕빙의 뜻과는 대부분 같지 않다.)”<sup>11)</sup>

이처럼 북송시대 때부터 僞書로 판명되었으니 지금의 『玄珠密語』가 왕빙의 저작이 아닌 것이 확실시 된다.

넷째 왕빙은 『素問』序에서 “辭理秘密하야 難祖論述者는 別撰『玄珠』하야 以陳其道라”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현주밀어』는 왕빙이 운기의 내용을 보충하

7) 永榕 撰. 四庫全書總目(上冊). 北京. 中華書局. 1995. p.937.

8)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20.

9)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19.

10)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19.

1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6.

기 위해서 지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위의 문장을 살펴보면 『玄珠』는 전체 소문에 대해서 보충한 책이지 결코 운기칠편 대론 만을 위해서 지은 책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는 『현주밀어』는 단지 오운육기만을 말하고 『소문』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왕빙이 『소문』을 주석하면서 별도로 『玄珠』를 지은 목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하는 『현주밀어』는 오운육기를 기본으로 부연설명하고 있지만 氣象과 天象을 관찰하여吉凶을 판단(觀象應天紀篇第5)하고 國家와 君臣의 安危, 전쟁, 변괴 등의 황당한 이야기(五行類應紀篇第25)까지를 언급하여 의사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呂復은 “苟啓玄別撰이 果見于世면 又豈止述氣運一端而已리오 覽者 取其長而去其短이 可也니라(만약 왕빙이 별도로 지은 『玄珠』책이 과연 세상에 나온다면 또한 어찌 단지 운기 한 부분만을 기술했으리오. 『현주밀어』를 보는 자는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옳으리라)”<sup>12)</sup>라고 하였고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偽書中之重臺(대는 중대, 노비대자로 중의 중, 노비의 노비의 뜻임)”<sup>13)</sup>라 하여 偽書中の 偽書라 하였다.

### 3. 현주밀어가 후세 운기학에 미친 영향

#### 1) 干德符

간덕부의 이론은 『현주밀어』에서 平氣를 추산하는 방법으로 처음 언급되었고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五運元通紀篇第一」에서 平氣를 추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4)</sup>.

“每年交司于年前大寒日할새 假令丁年交司之日에 遇日朔爲壬日이면 丁得壬을 名曰干德符也라. 符者는

合也니 便爲平氣也라. 若過此一日이면 縱遇라도 皆不相濟也라. 若交司之時에 遇時直符見壬이라도 亦然이오 過此면 亦不相濟也라. 其餘皆類也니 卽己逢甲하며 辛遇丙하며 癸逢戊하며 乙逢庚이면 皆爲干德符也라. 非交司日時하야 除此日時면 不相濟也라. 又于不及歲中에 逢月干이라도 皆得符合也하야 不相濟也라. 若未逢勝에 而見之干合者는 卽平氣也라. 若行勝以後와 行復以畢에 逢月干者는 卽得正位也니라. (매년 전년의 대한일에 交司하는데 가령(다음해가) 丁年인데 交司日의 일진이 壬日이면 丁壬이 合德하여 간덕부라고 말한다. 符라는 것은 合한다는 말이니 平氣年이 된다. 만약 이날이 지나면 비록 상합하더라도 모두 도와서 평기를 이루지 못한다. 만약 交司之時에 만나는 時刻이 곧장 壬을 만나 부합하더라도 또한 평기가 되나 이를 지나면 또한 도와서 평기를 이루지 못한다. 그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으니 己가 甲을 만나고 辛이 丙을 만나고 癸가 戊를 만나고 乙이 庚을 만나면 모두 간덕부가 된다. 交司하는 日과 時가 아니어서 그 日과 時를 제외하면 서로 도와 구제하지 못한다. 또 不及한 해에 月干을 만나더라도 모두 符合함을 얻어 相濟한다(不相濟의 不은 衍文인 듯하다) 만약 아직 勝氣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 天干이 合德하면 平氣가 된다. 만약 勝氣가 行한 이후와 復氣가 行한 것이 끝난 뒤에 相合하는 月干을 만나면 正位를 얻게 된다.)”

위의 내용은 不及하는 乙, 丁, 己, 辛, 癸의 해가 올 때 舊運과 新運이 交代하는 大寒日의 交司時刻, 大寒日의 일진, 그리고 정월의 월진이 相合하면 平氣가 된다는 것이다. 相合은 乙合庚하고 丁合壬하고 己合甲하고 辛合丙하고 癸合戊하는 것을 말하는데 不及한 陰干이 태과한 陽干을 만나 도움을 받아 相濟하여 平衡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交司時刻과 相合하면 時干德符라 하고 日辰과 相合하면 日干德符라 하고 月建과 相合하면 月干德符라 한다.

『현주밀어』는 더 나아가 正月을 지났지만 아직 勝氣가 오지 않았거나 또 勝復이 끝난더라도 不及한 天干이 그 달의 월진과 相合하면 正位를 얻어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다고 하였다.

12) 嚴世芸 編著.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1453.  
13) 永瑤 撰. 四庫全書總目(上冊). 北京. 中華書局. 1995. p.937.  
14)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23.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運符天地紀篇第三」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15)</sup>. “乙亥：中金運 正商平氣也니 其名審平也라 所謂平氣者는 謂三月得庚辰月이니 早見于德符也라. 乙柔見庚剛하면 即氣還正位也라. 火未得王故로 未勝而先平也오 火不勝하면 即水不復也며 又亥是水니 亦得年力故로 火不勝也라.(을해년의 중운은 金運이고 正商으로 평기가 되니 審平이라 한다. 이른바 평기라는 것은 3월이 경진월이 되니 미리 간덕부를 보게 되는 것이다. 乙의 柔가 庚의 剛을 만나면 氣가 正位로 돌아간다. 火가 아직 왕성함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勝氣가 오기 전에 먼저 平氣가 된 것이고 火克金을 안하면 水克火도 당하지 않으며 또 地支의 亥가 水니 또 水克火를 당하여 火가 勝氣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癸未：中火運 正徵 火得平氣也니 其名升明이라. 何以故오 即左右二火가 爲間氣相佐之也며 又五月戊午月에 先得干符也니 癸見戊而氣全也라. 先得符力하야 水未行勝故로 曰平氣라. 即水不勝하야 而土不復也라.(계미년은 中運이 火運이고 正徵가 되어 火가 平氣를 얻은 해가 되니 升明이라고 한다. 어째서인가. 즉 左右의 2개의 火가 間氣가 되어 서로 돕기 때문이며(이 내용은 뒤에서 상술) 또 5월이 戊午月이 되어 먼저 水克火를 당하기 전에 天干이 부합함을 얻으니 癸가 戊를 만나 氣가 온전해진 것이다. 먼저 부합하여 힘을 얻어 水가 勝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기가 된다. 즉 水가 勝하지 아니하여 土가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 내용은 앞의 “若未逢勝에 而見之干合者는 即平氣也라.”의 이론을 활용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현주밀어』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들이고 참고할 가치가 크다.

## 2) 正化 對化

정화 대화의 이론은 현주밀어의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후세에 대한 영향도 비교

적 크다. 「天元定化紀篇第四」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17)</sup>.

“厥陰이 所以司于巳亥者는 何也오 謂厥陰은 木也니 木生于亥 故로 正司于亥也오 對化于巳也라. 雖有卯爲正位木之分이나 謂陽明金對化之할새 所以從所生而順于司也라.

少陰이 所以司于子午者는 何也오 謂少陰爲君火니 君火尊位하야 所以正得南方離位也니 即正化于午하고 對化于子也라.

太陰이 所以司于丑未者는 何也오 謂太陰爲土也니 土主中宮하고 寄卦于坤이라 坤位西南하야 居未分也니 即正化于未하고 對化于丑也.

少陽이 所以司于寅申者는 何也오 謂少陽은 爲相火之位니 卑于君火也라 雖有午位나 君火以居之하고 即火生于寅也 故로 正司于寅하고 對化于申也라.

陽明이 所以司于卯酉者는 何也오 謂陽明爲金이오 西爲西方金位니 即正司于酉하고 對化于卯也라.

太陽이 所以司于辰戌者는 何也오. 謂太陽爲水니 水雖有于子位나 謂君火對化也라 水乃復于土中하고 即六戌在天門이니 即戌이 是也오 六已在地戶니 即辰이 是也라 故로 水歸土用하니 正司于戌하고 對化于辰也라.(월음이 巳亥에 배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월음은 木이니 木은 亥水에서 생기기 때문에 亥가 正化를 맡고 巳가 對化를 맡는다. 비록 卯가 木의 正位에 해당되나 陽明金이 대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水生木하는 것을 따라 순리대로 맡고 있는 것이다.

소음이 子午에 배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음은 君火니 君火는 지위가 높기 때문에 정남방의 離位를 얻으니 午가 正化가 되고 子가 對化가 된다.

태음이 丑未에 배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태음은 土니 土는 中宮을 主하고 坤卦에 함께 배치된다. 곧래는 서남쪽에 있어 未자리에 있으니 未가 正化가 되고 丑이 對化가 된다.

소양이 寅申에 배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양은 相火의 자리가 되니 君火보다 낮다. 비록 午位가 있지만 君火가 자리하고 火는 寅木에서 생기기 때

15)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30.

16)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33.

17)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39.

문에 寅이 正化가 되고 申이 對化가 된다.

양명이 卯酉에 배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명은 金이 되고 酉는 서방의 金의 자리니 酉가 正化가 되고 卯가 對化가 된다.

태양이 辰戌에 배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태양은 水니 水가 비록 子位에 있으나 君火의 對化의 위치가 된다. 水는 흙속에서 회복되고 6戊가 天門이 되니 戌이 이것이고 6己가 地戶가 되니 辰이 이것이다. 따라서 水는 土가 작용하는 곳으로 귀속되니 戌에서 正化를 맡고 辰에서 對化한다.)"

이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Fig. 1. The proper place creation and the opposite place creation of the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위의 내용은 亥는 水生木하고 寅은 木生火하여 正化가 되고 午, 未, 酉, 戌은 모두 火, 土, 金, 水가 왕성하게 작용하는 본래자리이기 때문에 正化가 된다는 것이다. 『현주밀어』는 同篇에서 “正司化之實하고 對司化之虛라.(정화는 화령의 실을 관장하고 대화는 화령의 허를 관장한다.)”<sup>18)</sup>고 하였고 또 만물은 “從其本而生하고 從其標而成”하는데 “正化가 본이 되고 對化가 標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붙이는 숫자는 “生하여 본이 되는 正化에는

生數를 붙이고 成하여 標가 되는 對化에는 成數를 붙인다”고 하였다. 덧붙여 “萬物이 皆成于土”하기 때문에 5土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成數를 對化에 붙이며 土는 10을 쓰지 않고 5만을 쓴다고도 하였다. 즉 巳亥厥陰風木에 숫자를 배속할 때 正化가 되는 亥는 3을 붙이고 對化가 되는 巳는 8을 붙이며 子午少陰君火는 正化가 되는 午는 2를 붙이고 對化가 되는 子는 7를 붙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天運加臨紀篇第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甲子年은 對化가 되어 盛而不實함으로 勝而有復하고 甲午年은 正化가 되어 盛而實함으로 勝而不復한다고 하였는데 60년을 모두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張介賓도 正化 對化는 “皆以言陰陽之衰盛하여 合于十二辰하여 以爲動靜消息者也라”<sup>19)</sup>고 평가하였다.

『至真要大論』의 六氣之復 아래 注에서 王水은 “凡先有勝이면 後必有復이라”<sup>20)</sup>하여 勝이 있으면 반드시 復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新枚正에서 『玄珠』에서는 “正司化令之實하고 對司化令之虛하니 對化는 勝而有復이나 正化는 勝而不復이라 하야늘 此注에 云凡先有勝이면 後必有復은 似未然이라”<sup>21)</sup>하여 오히려 王水의 注가 틀린 것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王水의 注와 『玄珠』의 내용이 틀린 것만 보더라도 『玄珠』의 저자는 왕빙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自明해진다.

### 3) 平氣

『玄珠密語』에서 平氣年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모든 편의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五運元通紀篇第一』에서는 丁卯, 乙酉, 辛亥, 癸巳, 己丑, 己未年과 干德符의 해가 平氣가 된다고 하였다.<sup>22)</sup> 이중 丁卯는 歲會니 평기가 맞고, 乙酉, 己丑 己未는 不及한 運이 司天之氣의 도움을 받는 同化

18)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40.

1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54.

20)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077.

2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077.

22)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23.

平氣에 해당되나 辛亥, 癸巳는 類歲會年으로 지금의 학자들은 평기에서 제외한다.

「運符天地紀篇第三」에서는 丁卯, 乙亥, 乙巳, 丁丑, 丁未, 癸未, 癸丑, 乙酉, 丁亥, 丁巳, 庚寅, 癸巳年の 12년을 평기의 해라 하였다.<sup>23)</sup> 丁卯는 歲會니 평기라 했고 乙亥, 乙巳는 3월이 庚辰月이 되어 乙庚合하여 平氣가 된다고 했으며 丁丑, 丁未, 丁亥, 丁巳는 正月의 월건이 壬寅이 되어 丁壬合하여 月干德符가 되어 平氣가 된다고 하였다. 또 癸未, 癸丑은 5월이 戊辰月이라 勝氣가 작용하기 전에 戊癸合하여 平氣가 되고 乙酉는 同化平氣로 보았으나 동일한 경우인 乙卯는 金不及年으로 보았다. 그리고 庚寅은 少陽相火가 司天하여 태과한 金을 克하여 齊化平氣가 된다고 했으나 동일한 경우인 庚申은 金太過年으로 보았다. 끝으로 癸巳는 類歲會인데 1篇에서와 같이 평기로 보았다.

「天罰有餘紀篇第八」에서는 庚子, 庚午, 庚寅, 庚申, 戊戌, 戊辰의 6년을 平氣라 하였다.<sup>24)</sup> 이는 司天之氣가 太過한 中運을 克하여 平氣가 되는 齊化平氣의 해인데 『素問』에서도 모두 平氣로 보고 있다.

「天運加臨紀篇第六」에서는 60년을 나열하면서 丁卯年 平氣라 하고 나머지 59년에는 平氣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25)</sup>

「陰虧平正紀篇第九」에서는 平氣運 13년을 기술하고 있는데 己未, 己丑, 乙酉, 乙卯, 丁亥, 丁巳, 癸巳, 癸亥, 辛丑, 辛未, 癸卯, 癸酉, 丁卯年이라고 하였다.<sup>26)</sup> 이 중 己丑, 己未, 乙酉, 乙卯, 丁亥, 丁巳는 同化平氣 6년으로 『素問』에서도 平氣로 보고 있다. 丁卯는 歲會니 평기년이고 癸巳, 癸亥, 辛丑, 辛未, 癸卯, 癸酉의 6년을 평기라고 한 것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이 6년은 모두 同歲會年이다. 同歲會는 在泉之氣의 五行과 不及한 五運의

五行이 일치하는 해이다. 癸巳, 癸亥年은 火運不及이나 少陽相火가 在泉하여 도와주고 있고 癸卯, 癸酉年은 火運不及이나 少陰君火가 在泉하여 도와주고 있으며 辛丑, 辛未年은 水運不及이나 太陽寒水가 在泉하여 도와주어 모두 平氣가 된다. 『素問』에서는 同歲會의 해를 언급하고 있으나 평기가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동세회의 해가 평기가 된다고 말한 것은 『玄珠』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믿을만한 이론이다.

#### 4. 玄珠密語와 運氣七篇의 內容 比較

『玄珠密語』의 이론과 運氣七篇大論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이 책이 王氷의 原作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 1) 五氣經天의 內容이 相異하다.

『素問』의 「五運行大論」에 甲己化土하고 乙庚化金하며 丙辛化水하고 丁壬化木하며 戊癸化火하는 근거로 天上의 五氣가 이 방위로 經天하였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丹天之氣는 經于牛女戊分하고 齡天之氣는 經于心尾己分하고

蒼天之氣는 經于危室柳鬼하고 素天之氣는 亢氐昴畢하고

玄天之氣는 經于張翼胃胃하니 所謂戊己分者는 奎璧角軫이니 則天地之門戶也라.”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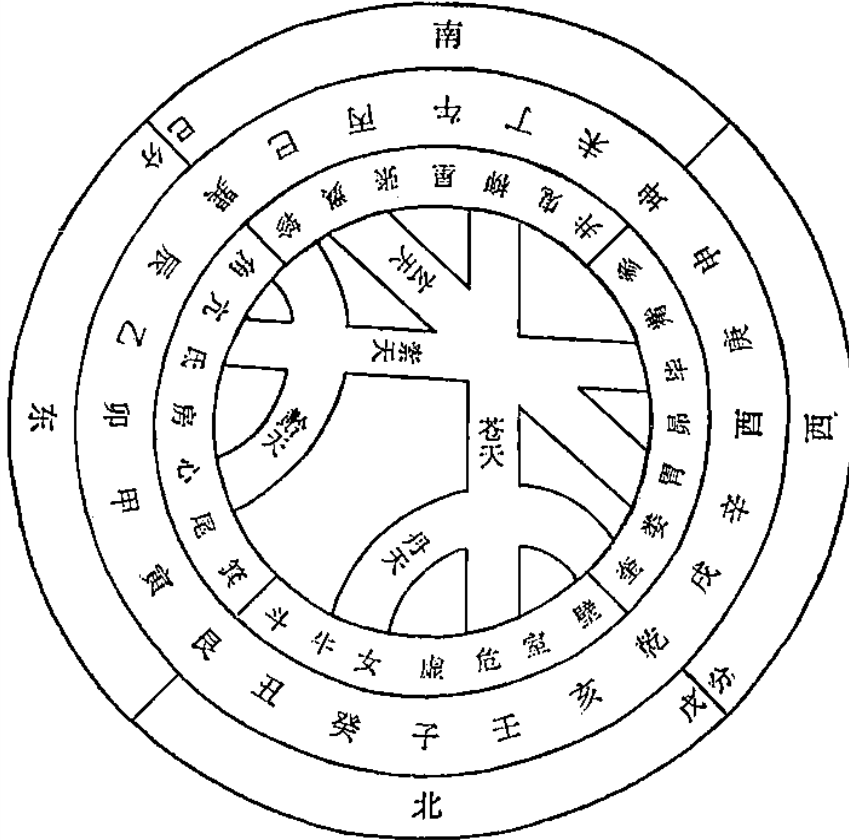
23)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p.227-236.

24)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p.267-268.

25)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p.248-260.

26)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p.272-274.

Fig. 2. Five energy cross a five space of the sky and change Five elements' Evolutions.



같은 내용이 『玄珠密語·五運元通紀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sup>27)</sup>.

“蒼天之氣는 經于鬼柳危室하니 即丁壬之分也오  
 丹天之氣는 經于角軫牛女하니 即戊癸之分也오  
 齡天之氣는 心尾參井하니 即甲己之分也오  
 素天之氣는 經于亢氏畢觜하니 即乙庚之分也오  
 玄天之氣는 經于張翼婁胃하니 即丙辛之分也라.”

위의 문장을 보면 3곳의 내용이 서로 相異하다. 이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비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戊己 대신 星宿로 표시하였다.

Table 1. In the Five energy cross a five space of the sky, comparison of *Ounhaengdaeron* and *Hyeonjumileo*.

| 五運行大論       | 玄珠密語        |
|-------------|-------------|
| 丹天之氣 經于牛女奎壁 | 丹天之氣 經于角軫牛女 |
| 齡天之氣 經于心尾角軫 | 齡天之氣 經于心尾參井 |
| 素天之氣 經于亢氏畢觜 | 素天之氣 經于亢氏畢觜 |

『현주밀어』에서 丹天之氣가 經于角軫牛女로 뻗었다고 한 것은 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戊分과 己分은 학자들에 따라 서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角軫牛

27)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p.221-222.

女를 戊癸火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素天之氣가 亢氏畢觜했다는 것도 畢觜의 방향이 庚方임으로 긍정할 수 있으나 齡天之氣가 心尾參井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 2) 현주밀어는 術家の 理論을 援用하고 있다.

『현주밀어』는 운기와 관련된 내용 외에 吉凶과 災殃을 점치는 術家の 讖緯學說이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篇이 「觀象應天紀篇第五」「災祥應論紀篇第十二」「五行類應紀篇第二十五」 등이다. 『玄珠密語』에는 運氣를 활용하면서도 術數의 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또한 많은데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勝符會對紀篇第二十二」에 “直符在泉十二法”이란 것이 있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28)</sup>

“巳亥 下見甲寅少陽相火在泉 甲本寄寅 命曰直符符者 合也 地化自然 別無刑克” 이를 해석해보면 巳亥年에는 巳亥厥陰風木이 司天하니 少陽相火가 在泉한다. 그런데 甲寅少陽相火在泉이라 하였다. 甲寅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己와 合하는 것은 甲이고 少陽相火는 寅申과 배합됨으로 甲寅과 甲申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己亥年에는 甲寅의 少陽相火가 在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甲은 본래 寅에 붙어 있어 둘이 서로 合德한다는 것이다. 이는 地藏干을 말하는 것이다. 地藏干은 地支속에 감추어져 있는 天干으로 四柱를 볼 때 通變하기 위해 活用하는 이론이다. 寅속에는 甲丙戊가 숨어 있어 甲本寄寅이라 한 것이다. 申속에는 庚, 壬, 戊가 숨어있어 甲과는 直符하지 않음으로 甲申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은 듯하다. 이렇게 合德하면 땅의 변화가 자연스러워 별다른 刑克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在泉의 干支를 도출해 내고 地藏干을 活用하는 것은 運氣七篇 속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 3) 기타

28)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345.

운기칠편의 記述形式 및 이론과 구별되는 몇 가지만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기칠편에서는 司天之氣를 上角, 上微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주밀어』의 「天運加臨紀編第六」에서는 “甲子 上正微” “乙丑 上正宮”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sup>29)</sup> 운기칠편에서는 平氣일때만 正字를 써서 正角, 正微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司天之氣에 正字를 쓰는 것을 『素問』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둘째 『素問』의 「五常政大論」에 動物의 育, 不育을 서술하고 있는데 在泉之氣의 영향을 가장 중시하여 이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司天之氣는 在泉之氣보다 영향이 적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주밀어』의 동편에서 “甲子……甲虫災” “乙丑……鱗虫夭” “丙寅……甲虫災” “丁卯……毛虫災” 등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30)</sup>

이는 在泉之氣를 무시하고 司天之氣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설명해보면 甲子年은 소음군화가 司天하니 火克金하여 甲虫이 재앙을 당하고, 乙丑年은 태음습토가 司天하니 土克水하여 鱗虫이 번식을 못하고, 丙寅年은 소양상화가 司天하니 火克金하여 甲虫이 재앙을 당하고, 정묘년은 양명조금이 司天하니 金克木하여 毛虫이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司天之氣만을 중요시 하는 것은 내경 운기편의 이론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 「運符天地紀篇第三」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31)</sup> “癸未: 中火運 正微 火得平氣也니 其名升明이라. 何以故오 卽左右二火가 爲間氣相佐之也며 又五月戊午月에 先得干符也니 癸見戊而氣全也라. 先得符力하야 水未行勝 故로 曰平氣라. 卽水不勝하야 而土不復也라.” 여기서는 癸未年이 火平氣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左右의 二火가 間氣가 되어 不及한 火運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癸未年에는 少陰君火가 天之右間이 되어 二之氣가 되고 少陽相

29)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48.

30)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p.248-249.

31)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33.

火가 天之左間이 되어 四之氣가 된다. 그리하여 不及한 火運이 左右 二火의 도움을 받아 正微의 平氣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운기칠편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론들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금 전하고 있는 『현주밀어』가 왕빙이 지은 『玄珠』와는 별개의 책이며 또한 『素問』의 운기칠편을 부연·설명한 책이 아니라 별도의 계통으로 유전되어 온 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중국의 顧植山의 주장을 소개한다.<sup>32)</sup>

“『현주밀어』는 『소문』의 운기칠편과는 다른 流派의 운기학설 문헌이다. 운기학설은 東漢시기 緯書의 학설을 기피할 때 조정의 명으로 禁止가 되었고 수나라 때 이르러 더욱 금기시되어 운기학의 내용이 실린 서적은 공개적으로 流傳될 수가 없었고 단지 사적으로 비밀리에 전수되었다. 그래서 『소문』에서도 제7권이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당나라 때 이르러 조정의 금령이 완화되자 운기학설은 공개적으로 流傳될 수 있었고 따라서 왕빙도 칠편대론을 補入하게 되었다. 동시에 운기학설은 비밀리에 전수되는 과정 속에서 각기 다른 流派를 형성하였는데 『현주밀어』와 『소문』의 칠편대론은 不同한 流派를 대표함으로 내용상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위의 내용은 중국의 학술계에서 流派問의 분쟁이 많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일보된 연구를 기대해본다.

## 5. 玄珠密語의 개략적인 내용

지금 전해지고 있는 『현주밀어』는 17卷, 27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의 내용을 張登本의 설명을 참고하여 빠진 것은 보충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새롭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3)</sup>

1권은 「五運元通紀篇」과 「迎隨補瀉紀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五運元通紀篇」은 오운에 관한 정의, 五氣經天化運, 五運之氣가 氣象 및 萬物에 대한 영향, 太過年, 不及年, 平氣年, 干德符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迎隨補瀉紀篇」은 五運之氣가 勝할 때의 前兆현상과 針刺를 통한 예방법 즉, 木勝時 12월에 太衝瀉 補脾源, 火勝時 3월에 太陵瀉 補肺源, 土勝時 5월에 太白瀉 補水源, 金勝時 6월에 太淵瀉 補木源, 水勝時 9월에 太溪瀉 補火源하는 방법과 五味로 치료하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2권은 「運符天地紀篇」 一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1紀 30년 歲運의 태과 불급 평기에 따른 기후, 사물의 변화, 재해의 특징 및 발병규율을 서술하였다. 이편은 『소문』의 「氣交變大論」에서 오운의 태과 불급의 病症을 기록한 부분과 유사한 곳이 많다.

3권은 「天元定化紀編」과 「觀象應天紀編」으로 구성되어 있다. 「天元定化紀編」은 司天의 정의, 육기 사천할 때의 기후, 사물의 변화, 재해, 발병특징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소문의 「五常政大論」의 내용과 유사하며 끝에 正化, 對化, 間氣 등을 기술하고 있다. 「觀象應天紀編」에서는 六氣변화에 따른 五星形象之變異와 日月氣候의 變化, 무지개 등 자연현상의 특징 그리고 이에 따른 國難, 人事의 吉凶 등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術家의 理論으로 운기의학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4권은 「天運加臨紀篇」으로 一論이다. 이곳에서는 一周 60년마다 사천지와 中運之氣의 加臨, 勝復規律, 승기와 복기 때의 동물, 星象, 民病的 특징과 60년 氣運加臨이 만들어 내는 각기 다른 기후특징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어떤 성미의 藥食을 결정할 것인지를 논술하였다.

5권은 「占候氣運紀篇」으로 一論이다. 전적으로 五運의 정의, 甲丙戊庚壬 歲運이 태과한 24년의 歲運交司時刻 계산법, 교운시각 때의 望氣法, 天氣의 發現특징 등을 서술하였다.

32) 荊麗娟. 素問六氣玄珠密語版本流傳情況及與王冰玄珠真偽辨疑. 中華中醫藥學刊. 2010. 28(10). pp.2051-2053.

33) 張登本. 王冰與玄珠密語源流考. 中醫藥學刊. 2005. 23(4). pp.586-587.

6권은 「天罰有餘紀篇」과 「陰虧平正紀篇」의 二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天罰有餘紀篇」은 태과한 運이 被抑하여 平氣가 되는 庚子, 庚午, 庚寅, 庚申, 戊戌, 戊辰의 6년을 서술하고 있다. 「陰虧平正紀編」에서는 乙, 丁, 己, 辛, 癸, 五陰干이 들어간 해 17년의 교운시각계산법, 이때의 望氣法, 天氣의 특징, 復氣의 작용 등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平氣 13년을 서술하고 있는데 平氣 13년은 運이 不及한데 司天之氣의 도움을 받아 平氣가 되는 己未, 己丑, 乙酉, 乙卯, 丁亥, 丁巳의 同化平氣 6년, 同歲會 6년(癸巳, 癸亥, 辛丑, 辛未, 癸卯, 癸酉) 그리고 歲會인 丁卯년을 합한 수이다.

7권은 三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運臨超接紀篇」인데 一周 60년 중 40년은 歲氣와 歲運之間에 臨御관계가 발생하여 凶年이 들지 않고 나머지 20년은 脫臨(臨御하지를 못하는 것이다)의 해가 되어 凶年이 든다고 하였다. 둘째는 「運通災化紀篇」이다. 이 論은 아래의 몇 가지 정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在泉之氣가 歲運을 제약하는 “地刑運一十二法”, 司天之 左右間氣가 세운을 제약하는 “間刑運十法”, 歲氣가 歲運을 制約하는 “客刑運五法”, 天符 6년의 歲運이 制約을 받는 “天符勝運六法”, 태을천부 동천부 동세회를 서술한 “太乙天符運四法”, “同天符四法”, “同歲會運十二法”이 있고 五運之氣가 制約을 받아 鬱氣를 이루는 “天鬱五法”, 每運이 태과할 때 司天之氣의 克을 받아 氣象에 이상이 생기고 民病이 발생하는 “天殺運五法”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는 「災祥應綸紀篇」이다. 이 篇은 태평한 세상, 升平한 세상이 오고, 明君, 聖人, 賢人이 출현하는 것을 天氣를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讖緯論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이다.

8권은 二論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南政順司紀篇」인데 전적으로 南政司天 12년의 氣運의 교사시각계산방법과 交司할 때에 하늘에 나타나는 기상특징을 소개하였다. 둘째는 「北政右遷紀篇」인데 전적으로 北政司天 48년의 기운의 교사시각계산방법과

交司할 때에 나타나는 하늘의 기상특징 등을 기술하였다. 여기서 설명하는 남정 북정은 甲己를 南政으로 삼고 나머지를 北政으로 삼고 있는데 이 卷의 이러한 내용은 전적으로 왕빙의 주석과 일치한다. 그러나 交司時刻를 계산하는 방법과 占天望氣 등의 내용은 『內經』에 없는 내용들이다.

9권은 「司天配輸紀篇」 一論으로 되어 있는데 일곱 개 방면에서 運과 司天之氣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運勝司天六法”으로 세운이 司天之氣를 克하는 12년 중 太過 6년만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는 “六運承司天六法”으로 運이 사천지기를 克하는 12년 중 不及 6년을 먼저 언급하고 천간의 방위오행속성과 司天之氣의 오행이 일치하는 與天同德 12년을 기술하였다. 셋째는 “運合司天十二法”으로 오운과 사천지기의 오행속성이 같은 天符 12년을 기술하였다. 넷째는 “臨下司天十二法”으로 司天之氣가 運을 克하는 12년을 기술하였다. 다섯째는 “順化司天十二法”으로 司天之氣가 五運을 生하는 12년을 기술하였다. 여섯째는 “逆化司天十二法”으로 五運이 司天之氣를 生하는 12년을 기술하였다. 일곱째는 司天之氣와 運이 모두 虛하여 각각 勝氣의 克을 받아 서로 不相濟하는 “天運不濟十二法”을 기술하였다.

10권은 二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正化令專紀篇」으로 亥, 寅, 午, 未, 酉, 戌의 正化 30년간 사천지기에 따른 交司時刻, 氣候, 物化특징, 발병규율을 專述하였다. 둘째는 「對司易正紀篇」으로 子, 丑, 卯, 辰, 巳, 申의 對化 30년간 사천지기에 따른 교사시각과 기상, 物化, 발병특징을 專述하였다.

11권은 一論으로 「司天間化紀篇」이다. 이 編에서는 전적으로 6년 사천지기의 좌간, 우간이 사천지기에 대한 영향을 논술하였고 大間(左右二間氣가 동시에 작용을 발휘하는 것)과 小間(左間 혹은 右間の 一步間氣만 작용을 발휘하는 것)의 작용을 서술하였다.

12권은 「三元配輪紀篇」 一論이다. 30년의 사천, 재천, 세운지기 三者가 상호작용하는 규율, 交司時刻 및 기상, 물화, 발병특징 등을 논술하였다.

13권은 二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地應三元紀篇」으로 30년 재천지기와 세운사이의 관계 그리고 기운교사시각 그 해의 기상, 물화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둘째는 「地合運勝紀篇」으로 12년 재천지기와 세운오행속성이 부합되어서 세운이 편승하는 “運合在泉十二法”을 논술하였고 또 12년의 세운이 재천지기를 제약할 때의 기후, 물화 특징을 기술한 “運勝在泉十二法”이 있다.

14권은 二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勝符會對紀篇」으로 在泉之氣의 地支가 地歲干의 天干과 직접 符合하는 “直符在泉十二法”과 在泉之氣의 干支에서 地支가 天干를 克하는 “地勝在泉十二法”으로 나누어 氣候와 物化특징을 서술하였다. 둘째는 「災郁逆順紀篇」으로 在泉之氣가 中運의 克을 받아 올체되는 5년(“地郁在泉五法”), 在泉之氣가 中運之氣를 生하여 爲父在下하고 爲子在上하는 逆化 12년(“逆化在泉十二法”), 中運之氣가 在泉之氣를 生하여 爲父在上하고 爲子在下하는 順化 12년(“順化在泉十二法”) 그리고 마지막의 “資化在泉十二法”에서 在泉之氣가 中運의 克을 받지 않을 때 五味의 化生과 肥盛을 기술하고 있다.

15권은 「地土間物紀篇」 一論으로 되어 있다. 30년 재천지기 및 좌우간기의 기후, 物化에 대한 영향을 논술하였고 세운이 재천의 좌우간기를 제약하는 6년의 기후특징 그리고 재천지기의 좌우간기가 土氣로 化하는 규율 및 기후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16권은 二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五行類應紀篇」으로 五行의 歸類와 이에 상응하는 日月星辰, 기후, 物化, 길흉, 禍福 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 國家의 興亡, 君臣의 禍福, 災難의 예고, 變怪의 出現 등 術家들이吉凶을 점치는 내용과 특이현상을 기술하여 운기학의 범위를 벗어나

識緯說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둘째는 「生稟化源紀篇」으로 混沌에서 原氣가 나와 太初 太極을 거쳐 天地와 日月이 생성되고 여기서 五星, 五行, 六氣가 형성되어 만물이 出現하는 萬物生化의 과정 및 五星, 五行, 五蟲의 상응관계를 설명하였고 끝에서 天地가 萬種生化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

17권은 마지막 권으로 「六元還周紀篇」 一論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六元正紀大論의 서술과 매우 유사하여 각각 太陽之政, 陽明之政, 少陽之政, 太陰之政, 少陰之政, 厥陰之政의 사천, 재천, 중운지기 삼자의 氣運규율과 그와 상응하는 기후, 物化, 재해, 발병의 規律 등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篇의 論說이 『素問·六元正紀大論』의 설명과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 6. 結 論

『素問六氣玄珠密語』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왕빙이 『소문』의 서문을 쓴 시기는 762년이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玄珠』를 썼다. 『소문육기현주밀어』의 저자가 이 책을 쓴 시기는 690년 이후 즉 천무후시기가 됨으로 『소문육기현주밀어』는 왕빙의 저술이 아니다.

2. 왕빙의 글은 文詞가 典雅하고 의서의 범주에 속하나 『소문육기현주밀어』의 서문은 文勢가 거칠고 道家類의 술수서로써 私傳할 것을 강조하였으니 왕빙이 쓴 책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3. 왕빙의 『玄珠』는 『素問』의 주석서로 편찬되었고 『소문육기현주밀어』는 운기와 술수 참위학설로 구성되어 두 책의 성격이 같지 않다.

4. 『소문육기현주밀어』가 후세 운기학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는 干德符論, 正化對化論 그리고 平氣추산방법 등이 있다.

5. 운기칠편과 『소문육기현주밀어』의 내용을 비교분석해보면 五氣經天의 내용이 相異하다. 『소문육기현주밀어』는 地藏干 등 術家の 이론을 授用하였고 司天之氣를 正角, 正徵 등으로 기술하여 운기칠편의 기술형식과 다르다. 動物의 化育에 대해 운기칠편에서는 在泉之氣를 강조하였으나 이 책은 司天之氣를 중시하여 觀點이 다르다. 그리고 平氣를 추산할 때 左右間氣의 영향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운기칠편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6. 『소문』의 운기칠편과 『소문육기현주밀어』는 각기 다른 流派에서 전하여 온 운기학설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진일보한 연구를 기대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References

- Gwak AC. Hwangjenaegyong Somun Gyoju(1).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2.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 Yeong Y ed.. Sagojeonseochongmok(1). Beijing. Chung Hwa Book Co. 1995.  
永瑤 撰. 四庫全書總目(上冊). 北京. 中華書局. 1995.
- Eom SU ed.. Zhongguo yiji tongkao. Seoul. Uiseongdang. 1993.  
嚴世芸 編著.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 Yu OS original work. Chang RP ed.. Somunungirono. Beijing. Xueyuanchubanshe. 2008.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 Chang GB. Yugyeongdoik. Seoul. Seongbosa. 198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 Tal T ed.. History Song Dynasty(15). Beijing. Chung Hwa Book Co. 1990.  
脫脫 撰. 宋史(15). 北京. 中華書局. 1990.
- So Y, Seop GN. A Study on *Hyeonjumileo* an infectious disease.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2. 18(10).  
蘇穎, 聶金娜. 玄珠密語疫理鉤玄.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2. 18(10).
- Chang DB. A Study on Wang Bing and *Hyeonjumileo* Contents. Chinese Archiv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5. 23(4).  
張登本. 王冰與玄珠密語源流考. 中醫藥學刊. 2005. 23(4).
- Hyeong RY. The Spreading Process of The Editions of Suwen Liuqi Xuanzhumiyu And Dispute over Whether It Is The Work Xuanzhu by Wang Bing or Not. Chinese Archiv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0. 28(10).  
荊麗娟. 素問六氣玄珠密語版本流傳情況及與王冰玄珠真偽辨疑. 中華中醫藥學刊. 2010. 28(10).

